

제30회 (社)韓國語文會 漢字指導師資格檢定 問題紙

## 漢字指導師 高級

施行日 : 2014年 10月 18日(土)

성명		감독 확인	
수험 번호			

### ※ 유의 사항

- ▶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.
- ▶ 시험 문항은 총 150문항입니다.
- ▶ 지원 등급과 문제지의 등급이 같은지 확인하십시오.
- ▶ 답안지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십시오.
- ▶ 답안 수정은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십시오.
- ▶ 시험 시작과 종료는 감독위원의 지시를 따르십시오.
- ▶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답안지를 모두 감독위원에게 제출하십시오.



社團法人 韓國語文會

[漢字學 理論]

※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1-2)

[ 1 ] 다음 漢字의 기원과 관련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伏羲氏의 八卦는 占卜에 使用된 記號로 漢字의 起源과는 관련성이 없  
다고 할 수 있다.
- ② 神農氏의 結繩文字는 여러 가지 끈으로 매듭을 지어 일을 記錄하는 原  
始的 方法으로 漢字의 기원이 되었다.
- ③ 黃帝의 史官이었던 蒼頡<sup>창힐</sup>이 새와 짐승의 발자국을 본떠서 처음으로  
文字를 만들었다는 설도 있다.
- ④ 書契는 대나무 조각 따위에 날카로운 것으로 물건의 수량을 새기는 原  
始的 方法이었다.

[ 2 ] 다음 漢字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면 ‘○’, 그릇되면 ‘×’ 표시를 하시오.

漢字는 語句 속에서도 字形(語形)의 변화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.

※ 다음 제시한 漢字의 訓과 音을 쓰시오. (3-11)

- [ 3 ] 勻
- [ 4 ] 輒
- [ 5 ] 机
- [ 6 ] 砧
- [ 7 ] 辜
- [ 8 ] 貂
- [ 9 ] 耘
- [10] 芎
- [11] 芒

※ 다음 제시한訓과 음에 맞는 漢字를 쓰시오. (12-20)

- [12] 외작 척
- [13] 나라동산 원
- [14] 다듬을 탁
- [15] 꽃을 삼
- [16] 더부살이 교
- [17] 달아날 추
- [18] 심할 흑
- [19] 집터 대
- [20] 갓은두 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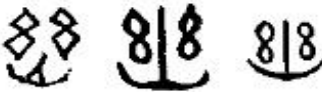
※ 다음은 漢字 字形의 변천을 보인 것이다. 이에 해당하는 漢字를 <보기>에서 고르시오. (21-23)


<보기>


- ① 衆 ② 米 ③ 爻 ④ 龜 ⑤ 黍 ⑥ 鼠


- [21] 
- [22] 
- [23] 

※ 다음은 漢字 字形의 변천을 보인 것이다. 설명을 참고하여 楷書體해서체 字形으로 바꾸어 쓰시오. (24-27)

- [24]  : 불빛이 희미하다는 의미를 표현하여 ‘어둡다’의 뜻을 보인 字.

[25]  : 작은 점 넷을 표현한 글자로 ‘적다’의 뜻을 나타낸 字.

[26]  : 손에 차꼬가 채워진 모습을 표현한 글자로, ‘붙잡다’의 뜻을 나타낸 字.

[27]  : 집 안에 자리를 펴고 누운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여 ‘잠을 잔다’는 뜻을 나타낸 字.

※ 다음 제시한 正字는 略字로, 略字는 正字로 바꾸어 쓰시오. (28-32)

- [28] 顛
- [29] 鑄
- [30] 醉
- [31] 逶
- [32] 拈

※ 다음 제시한 漢字의 部首를 쓰시오. (33-37)

- [33] 疋
- [34] 禿
- [35] 凸
- [36] 夙
- [37] 靡

※ 다음 제시한 漢字의 筆順이 바른 것은 ‘○’, 틀린 것은 ‘×’를 하시오. (38-42)

[38] 一 寸 寸 才 求 求

[39] 丶 丿 ㇇ 户 户 户 房 房

[40] 宀 宀 宀 宀 宀 宀 宀 宀 宀

[41]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

[42] 山 山 山 山 山 山 山 山 山

※ 다음은 六書에 관한 설명의 하나다.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보기에서 골라 그 번호를 쓰시오. (43-49)

<보기>

- ① 象形 ② 指事 ③ 會意 ④ 形聲 ⑤ 轉注 ⑥ 假借

- [43] ‘兒’字는 숫구멍이 닫히지 않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본 뜬 글자로, ‘아이’의 뜻을 나타낸다.
- [44] ‘彌’字는 弜과 丙의 合字로, 뒤틀린 활을 바로 잡거나, 활을 뒤로 젖힌 후에 고정시키는 해궁(解弓)을 할 때 활 양쪽에 잡아매어 작업을 수월하게 하는 도구인 도지개를 가리키며, ‘돕다’의 뜻을 나타낸다.
- [45] ‘牧’字는 ‘牛’, ‘攴’의 결합으로, 소를 채찍으로 치는 데서, ‘마소 치는 사람, 짐승을 기르다’의 뜻을 나타낸다.
- [46] ‘盟’字는 ‘血’과 ‘明’의 合字로, 소리는 ‘明’이 나타내며, 희생의 피(血)를 마시는 것을 보인 글자로, ‘맹서하다’의 뜻을 나타낸다.
- [47] ‘弗’字는 ‘아니다’의 뜻인데, 미국 등의 화폐 달러(DOLLAR)의 표시 기호 ‘\$’와 모양이 비슷한 데서, ‘\$’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.
- [48] ‘朱’字는 ‘木’과 ‘一’의 合字로, 나무줄기 중간을 잘랐다는 표시를 함으로써 나무줄기의 붉은 속심을 가리킨다.
- [49] ‘妙’字는 여자가 어린 데서, ‘젊다, 예쁘다’의 뜻인데, 어린 여자의 심리가 가끔 알 수 없고, 헤아리기 어렵다는데서, ‘묘하다’의 뜻으로 발전하였다.

## [漢字語彙 教育論]

※ 다음 중 그 짜임(構造)이 아주 다른 漢字語를 골라 그 번호를 쓰시오. (50-54)

- [50] 서시는 ①嘖眉하여도 아름답다 했던가? 온갖 의학과 ②治粧의 기술로 꾸미고, ③撮影에 임한 여배우의 모습이 아름다운가? 오래된 절의 ④鍍金한 불상에서 소리 없는 미소가 느껴지는가?
- [51] 오래 ①戀慕해 온 그녀와 한 자리에서 만나는 날, ②玲瓏한 그녀의 맑은 눈에 나의 멋진 이미지를 심으려면 ③訥澁한 말솜씨가 탄로 나면 안 되겠지. 급히 원군을 청하여 ④馳辯한 친구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.
- [52] ①冬至도 지난 한 겨울, 바람에 ②紙鳶을 하늘 높이 띄우니 멀리 가오리 한 마리. 거기가 ③蒼穹인가 ④海隅인가?
- [53] 기름을 ①壓搾하는 기계처럼 가엾은 백성의 물건을 ②勒徵한다면 아무리 ③庸拙한 이라도 마지막에는 반발할 것이니 장차 배가 ④縱搖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리라.
- [54] ①負薪救火의 어리석음을 다 알건만 어찌 장래를 내다보고 伏地不動하고 苛斂誅求하는 무리를 ②拔本塞源하지 않는가? 이 시대에는 ③輔國安民의 인재가 없는 것인가? 아니면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예로부터 同聲相應의 공동체란 말인가? ④一蓮托生이란 말은 차마 쓰고 싶지 않다.

※ 다음 밑줄 친 漢字語의 뜻을 풀이하시오. (55-59)

- [55] 그 분 홀로 汚穢한 세계에서 버티어 낼 수 있을까?
- [56] 이조(吏曹)에서는 문관의 銓衡을 맡았다.
- [57] 삼국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拔萃하였다.
- [58] 만수의 월급 정도로는 세 식구가 糊口할 수가 없었다.
- [59] 오랜 연구 끝에 이치를 攄得하였다.

※ 다음 漢字語의 뜻을 固有語만으로 풀이하시오. (60-64)

- [60] 繩索
- [61] 甘薯
- [62] 捐館
- [63] 貝塚
- [64] 海苔

※ 다음 밑줄 친 漢字語의 字義가 아닌 실제로 쓰이는 轉義를 쓰시오. (65-69)

- [65]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은 事齊事楚라 할 수 있지.
- [66] 자본이 많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. 長袖善舞라 하지 않던가?
- [67] 잘못 吹毛覓疵하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네.
- [68] 그 사람 참! 徙家忘妻란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로군.
- [69] 옛날 사람들은 鄒魯의 학문을 익히는 데 힘썼다.
- [70] 그해에 처음으로 밭에서 결실을 얻으니 이것이 농사의 權輿이다.
- [71] 의료 기술의 발달로 傘壽의 나이에든 어른 대접 받기가 수월치 않다 하더 이다.
- [72] 수확 곡식을 나누면서 毫釐도 틀림이 없었다.

※ 다음 漢字語의 풀이가 맞는 것은 ‘○’, 틀린 것은 ‘×’를 하시오. (73-74)

- [73] ‘이 책은 재미있다.’ 할 때의 ‘재미’는 한자말 ‘滋味’에서 온 것이다. ‘滋’의 뜻은 ‘불다’이다. ‘味’의 뜻은 ‘맛’이다. 그래서 ‘滋味’는 ‘맛이 불어난다, 먹을수록 맛이 좋다’의 뜻이고, 또 그런 음식을 이른다. 그런데,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기분이나 느낌이 일하거나 놀 때의 즐거운 기분이나 성취감 따위로 옮겨진 것이다. 그래서 ‘재미’는 ‘즐거운 기분이나 느낌, 좋은 성과나 보람’의 뜻을 지니게 되었다.
- [74] 신이 나서 외칠 때 ‘야호’라고 한다. 그런데 이 말도 한자어로 ‘耶許’라고 쓴다. ‘耶’와 ‘許(호)’는 어조사로 특별한 뜻을 지니고 있기 보다는 신이 나서 외치는 환호의 소리를 나타낸다. 등산하는 사람들이 서로 부르거나 외치는 소리인 ‘야호!’하고는 다르다.

## ※ 다음 글의 밑줄 친 漢字語를 漢字 正字로 쓰시오. (75-89)

[75]명경! 세상에 거울처럼 두려운 물건이 다신들 있을 수 있을까? 인간 [76]비극은 거울이 발명되면서 비롯했고, 인류 문화의 근원은 거울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나의 지나친 억설일까? 백번 놀라도 [77]유부족일 거울의 [78]요술을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일상으로 대하게 되었다는 것은 또 얼마나 [79]가경할 일인가? 신라조 최후의 왕자인 마의태자는 [80]시방 내가 서 있는 이 바위 위에 꿰어 엮드려 명경대를 우러러보며 오랜 세월을 두고 나무아미타불을 [81]염송했다니 태자도 당신의 업죄를 명경에 [82]영조해 보시려는 뜻이었을까? 운상기품에 무슨 죄가 있으랴만 [83]등극하실 몸에 마의를 감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 이미 불법이 말하는 전생의 연일는지 모른다. 두고 떠나기 아쉬운 마음에 몇 번이고 뒤를 돌아다보며 계곡을 돌아 나가니, 앞으로 염마처럼 막아서는 [84]옹자가 석가봉, 뒤로 맹호같이 덮누르는 신용이 천진봉! 전후좌우를 살펴봐야 협착한 골짜기는 그저 그뿐인 듯. 진퇴유곡의 [85]절박감을 느끼며 그대로 걸어 나가니, 간신히 트이는 또 하나의 협곡! 몸에 감길 듯이 정겨운 황천강 물줄기를 끼고 돌면, 길은 막히는 듯 나타나고, 나타나는 듯 막히고, 이 산에 흠어진 전설과 저 봉에 얽힌 유래담을 길잡이에게 들어가며 쉬엄쉬엄 걸어 나가는 동안에, 몸은 어느덧 심해같이 유수한 수림 속을 거닐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. 천하에 수목이 이렇게 [86]지천으로 많던가! 박달나무, 엄나무, 피나무, 자작나무, 고로쇠나무.....나무의 종족은 하늘의 별보다도 많다고 한 어느 시의 구절을 [87]연상하며 고개를 드니, 보이는 것이라고는 그저 단풍뿐, 단풍의 산이요, 단풍의 바다다. 산 전체가 요원 같은 화원이요, [88]벽공에 외연히 솟은 봉봉은 그대로가 활짝 피어 오른 한 떨기의 꽃송이다. 산은 때 아닌 때에 다시 한번 봄을 맞아 백화난만한 것일까? 아니면, 불의의 신화에 이 봉 저 봉이 송두리째 불게 타고 있는 것일까? 진주홍을 한껏 빨아들인 [89]해면같이 우러러볼수록 찬란하다. <鄭飛石의 山情無限에서>

## ※ 다음은 교과서 지문 속의 漢字語를 漢字로 노출한 것이다. 잘못된 것은? (90-94)

[90] 내가 찾은 한해살이 식물에는 강낭콩, 벼, ①玉수수, ②胡박이 있었어요. 그리고 여러해살이 식물에는 비비추, 감나무, ③沙果나무가 있었지요. (생략) 식물의 한 살이를 알고 나니 한 살이가 재미있고 ④新奇하였어요. 그리고 식물의 씨를 심고 자라게 하면서 생명의 ⑤所重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.



- [91] 화산은 땅속 깊은 곳에서 ①巖石이 높은 ②熱에 ③依하여 녹은 마그마가 ④奔出하여 생긴 ⑤地形입니다.
- [92] 자연에서 얻은 구리 ①鑛石은 ②渾合物입니다. 구리 광석에서 ③分離한 ④純粹한 구리를 다른 ⑤金屬과 섞으면 여러 가지 물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.
- [93] 윗접시저울로 무게를 잴 때 ①分銅을 사용합니다. 분동은 물체의 무게를 ②正確하게 재기 위하여 ③標準으로 만든 금속 물체입니다. 분동이 없을 때 ④簡單히 몸체의 무게를 ⑤測程하기 위해서는 클립이나 바둑돌처럼 무게가 일정한 기준 물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
- [94] ①多樣的 ②觀察과 ③經驗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면 이전에 ④推理하였던 내용의 옳고 그름을 ⑤判端할 수 있습니다.

※ 다음 제시한 漢字와 뜻이 같거나 비슷한 漢字를 ( ) 안에 넣어 통용되는 漢字語를 완성하거나 제시한 漢字語의 類義語[同義語]를 漢字 正字로 쓰시오.  
(95-99)

- [95] 譴( )  
[96] ( )擦  
[97] 萌( )  
[98] 折衝  
[99] 遷墓

※ 다음 제시한 漢字와 뜻이 반대[상대]되는 漢字를 ( ) 안에 넣어 통용되는 漢字語를 완성하거나 제시한 漢字語의 相對語[反義語]를 漢字 正字로 쓰시오.  
(100-104)

- [100] ( )壻  
[101] ( )曇  
[102] 舅( )  
[103] 挫折  
[104] 昧谷

※ 다음 제시한 漢字語와 音이 같은 漢字語를 제시된 조건에 맞게 正字로 쓰시오. 단, 긴 소리와 짧은 소리, 된소리와 예사소리의 차이는 무시하기로 함.  
(105-109)

[105] 陷穽 : 크거나 작은 군사용 배.

[106] 胎盤 : 거의 절반.

[107] 俊秀 : 규칙 따위를 그대로 좇아서 지킴.

[108] 暫福 : 드러나지 않게 숨음.

[109] 柴扉 : 거름주기.

## [漢字와 語文規定]

※ 다음 밑줄 친 漢字語의 讀音을 맞춤법과 표준어규정에 맞게 적으시오.  
(110-127)

-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성인의 가르침. [110]寥寥無聞은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여야 할 일. 뱃속이 불편한 것은 [111]退間을 다녀오면 해결할 수 있겠지만 마음의 불편함은 어찌 다스려야 할 것인가? 피비린내 나는 [112]殺戮이 지속된 전쟁 등의 혼란기를 벗어났다 하지만 꼭 병장기에 의해서만 빚어지는 것이던가? [113]乖愾한 사람들이 말로, 글로, 정책으로 날마다 사람을 사지로 몰아대니 이 불통의 세월을 어찌 견딜꼬. [114]遊說 현장에 가보면 사람은 넘치던데, 발 벗고 따라다니고 싶은 사람은 어이하여 보이지 않는 것일까? 그저 [115]喜怒哀樂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답인가하노라.
- 하늘의 [116]星宿를 살피며, 하늘의 움직임에 따른 인간 세상의 변화를 살피던 시절, 하늘의 아들을 자처한 군주들, 당시에는 천상의 움직임에 [117]畏栗할 줄이라도 알았다지만 이제는 그러한 두려움도 없으니 잘못 뽑으면 운수의 [118]否塞이라 여기고 참고 지내야만 하는 것인가. 님이여! 통촉하소서.
- 드디어 유천간에게 명하여 가벼운 배를 짓고 [119]駿馬를 몰아 망산도에 가서 서서 기다리게 하고 또 신귀간에게 명하여 승점으로 가게 했다. [120]忽然히 바다 건너 서남쪽으로부터 붉은 돛을 달고 붉은 깃발을 세운 배가 북으로 향해 오고 있다. 유천간 등이 섬 위에서 먼저 햇불을 드니 다투어 건너서 육지에 내려 달려왔다. 신귀간이 바라보고 대궐로 달려와 보고했다. 왕이 듣고 기뻐하며 곧 구간 등을 보내어 [121]燦爛하게 장식된 배로써 맞이하여 곧 궁궐로 모시고 들어가려 하자 왕후가 말하기를 “내가 그대들을 처음 보는데 어찌 가벼이 따라 갈 수 있겠는가?”하였다. 유천간 등이 돌아와 왕후의 말을 보고하자 왕이 옹게 여겨 유사를 거느리고 행차하여 궁궐 아래로부터 서남쪽으로 육십 걸음 되는 산기슭에 장막으로 궁전을 설치하고 기다렸다. 왕후는 산 밖의 별포 나루터에 배를 매고 육지로 올라와 높은 언덕에서 쉬면서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선물로 삼아 산령에게 보내었다. 저쪽 영역에서 [122]侍從해 온 잉신 두 명의 이름이 신보, 조광이요, 그들의 아내 두 사람은 모정, 모량이라 했다. 또 노비까지 합하면 이십여명이요, 가지고 온

[123]錦繡와綾羅, 의상, [124]疋緞, 금옥, 주옥, [125]環玖의 장신구 등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었다. (생략) 내가 배를 타고 멀리 [126]蒸棗를 찾고, 하늘로 가서 [127]蟠桃를 찾아 이제 모양을 가다듬고 감히 용안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. <三國遺事 駕洛國記에서>

※ 위 [119-127] 漢字語 중에서 첫소리가 길게 소리 나는 것을 3개만 적으시오.  
(128-130)

[128]

[129]

[130]

[漢字 教授-學習 方法論]

※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131-133)

[131] 다음 漢字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?

- ① 漢字는 表意文字이지만 表音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.
- ② 漢字 形聲文字의 音符를 통하여 聲을 알 수 있다.
- ③ 漢字의 기본은 象形과 指事문자이다.
- ④ 會意문자 또한 音符가 주요 기능을 한다.

[132] 다음은 국어생활에 있어서 漢字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.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?

- ① 漢字는 모양으로 뜻이나 소리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많다.
- ② 漢字는 뜻이 많고 소리가 하나 이상인 것도 많다.
- ③ 漢字는 직접 쓰기에는 획이 많고 복잡하다.
- ④ 漢字는 소리가 일정하지 않아 시대, 나라, 지방에 따라 다르다.

[133] 다음은 漢字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다.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?

- ① 漢字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문을 익히기 위한 것이다.
- ② 漢字교육은 漢字문화권 나라와의 교류를 위하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.
- ③ 漢字교육은 우리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 발전에 꼭 필요하다.
- ④ 漢字교육은 국어의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.

※ 다음 초등학교 漢字 교육 설계와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면 ‘○’, 아니면 ‘×’ 표시를 하시오. (134-137)

[134] ‘적용’ 단계는 漢字語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실제 문장으로 살피고, 漢字語를 가지고 활용해 보는 훈련 등이 필요하다.

[135] ‘훈음’ 단계는 한자의 3요소인 ‘形, 音, 義’를 중심으로 한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소리와 기본 뜻이 나온 과정을 여러 자료를 통하여 학습 및 교육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.

[136] ‘조어’ 단계는 어떤 하나의 漢字가 다른 漢字의 전후에 결합하여 수많은 漢字語를 생성해 냈을 보이고, 실제로 배운 한자를 중심으로 기존 한자어를 분석하여 한자의 풍부한 조어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배운 한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는 훈련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.

[137] ‘훈음’ 단계, ‘조어’ 단계, ‘적용’ 단계의 순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꾸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한자어를 분석하여 훈음 단계에 이르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.

※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. (138-142)

[138] 다음은 漢字 部首의 바뀐 모양에 대한 지도 내용이다.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‘灬’는 ‘火’의 변형이다.
- ② ‘𦉳, 𦉴, 𦉵’은 ‘网’의 변형이다.
- ③ ‘耑’는 ‘示’의 변형이다.
- ④ ‘小’은 ‘水’의 변형이다.

[139] 다음은 漢字의 字劃과 筆順 교육 내용에 관한 글이다.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받침은 맨 나중에 한다.
- ② 글자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일 때는 무조건 세로 먼저 쓴다.
- ③ 빼침과 과임이 어우를 때는 빼침 먼저 한다.
- ④ 예운답은 먼저 쓴다.

[140] 다음은 漢字語의 짜임(構造)에 대한 교안이다.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주술(主述) 구조 : 膚淺, 魄散, 鳳翔
- ② 술목(述目) 구조 : 吹螺, 匿名, 躡年
- ③ 술보(述補) 구조 : 無恙, 脫肛, 做事
- ④ 수식(修飾) 구조 : 塡塞, 帆船, 苟斂
- ⑤ 병렬(並列) 구조 : 洲嶼, 彷徨, 鈴鐸

[141] 다음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字源과 六書를 활용하여 교육할 때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다.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외래어를 한자의 음을 빌려 적은 것이 많이 쓰이므로 가차 문자는 자세히 가르치도록 한다.
- ② 회의문자는 한자의 뜻과 뜻이 만나서 새로운 뜻을 가진 글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실례를 들어가며 가르친다.
- ③ 형성문자는 소리를 익힐 때는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, 뜻을 익힐 때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을 강조하여 그 뜻과 소리를 익히도록 하는 것이 좋다.
- ④ 자원 지도는 한자의 훈과 음을 이해하는데, 목적이 있는 것이고, 자원 자체를 학습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.

[142] 다음에서 국어교육정상화 차원에서의 漢字 교육의 목표로 보기 어려운 것은?

- ① 한글과 한자를 두 축으로 하는 풍요로운 언어생활
- ② 한자어 뜻을 이해하고 활용하기
- ③ 고전 한문의 이해, 전통의 이해에 도움주기
- ④ 생활에서 모든 한자어는 한자로 쓸 수 있도록 하기

※ 어구를 대신할 적당한 漢字語를 찾는 활동을 하고 있다.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적당한 漢字語를 正字로 쓰시오. (143-147)

[143] 매사냥에서 돌아가던 평안감사가 황주 동실령 고개에서 낮잠을 자다가...

[144] 귀를 기울이니 죄인 다스리는 소리가 나는데 육칠월 악마구리 우는 소리 같았다.

[145] 어느덧 두서너 해가 지난 어떤 날 저녁에 여인은 이생에게 말했다.

[146] 누구도 밭 디딘 적 없는 순수 자연의 비경을 간직한 그 곳.

[147] 실제 경제성장률이 전망치에 못 미치면 세수도 줄어들기 마련인데...

※ 다음은 漢字語의 활용을 보인 것이다. 적절하면 ‘○’, 아니면 ‘×’ 표시를 하시오. (148-149)

[148] 이 초당은 謫客의 향수를 달래주었다.

[149] 따듯한 봄바람이 蕭瑟하게 불어오니 찬 겨울 얼었던 몸이 녹는 듯하다.

※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. (150)

[150] 고조선 農耕文靑銅器 유물의 원 안에 새겨진 다음 이미지를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는 漢字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力    ② 男    ③ 耕    ④ 豊





수험번호 □□□-□□-□□□□

성명 □□□□□

생년월일 □□□□□□

※ 유성 싸인펜, 붉은색 필기구 사용 불가.

※ 답안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고, 정답 칸 안에만 쓰십시오.

글씨가 채점란으로 들어오면 오답처리가 됩니다.

제30회 한자지도사자격검정시험 고급 답안지(1)

답안란		채점란		답안란		채점란		답안란		채점란	
번호	정답	1점	2점	번호	정답	1점	2점	번호	정답	1점	2점
1	㉔			24	幽			47	㉒ 假借		
2	○			25	少			48	㉔ 指事		
3	구기 작			26	執			49	㉕ 轉注		
4	삐걱거릴 알			27	宿			50	㉔ 治粧		
5	책상 궤			28	顯			51	㉒ 馳辯		
6	다듬잇돌 침			29	鑄			52	㉑ 冬至		
7	허물 고			30	醉			53	㉓ 庸拙		
8	담비 초			31	遞			54	㉒ 一蓮托生		
9	김말 운			32	擴			55	지저분하고 더러움.		
10	함박꽃 작			33	疋			56	똥똥이나 재능 따위를 가려 뺌.		
11	까끄라기 망			34	禾			57	필요한 부분을 가려 뽑아 모음.		
12	隻			35	凵			58	입에 풀칠을 함. 겨우 끼니를 이어 감.		
13	苑			36	夕			59	깊이 생각하여 이치를 깨달아 알아냄.		
14	琢			37	麻			60	노와 새끼.		
15	插			38	○			61	고구마.		
16	僑			39	○			62	죽음.		
17	趨			40	○			63	조개무지. 조개더미.		
18	酷			41	×			64	김.		
19	垚			42	×			65	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신세.		
20	貳			43	㉑ 象形			66	재물이 많으면 성공하기가 쉬움.		
21	㉕ 黍			44	㉓ 會意			67	억지로 남의 작은 허물을 들추어 냄.		
22	㉓ 爻			45	㉓ 會意			68	무엇을 잘 잇음.		
23	㉒ 鼠			46	㉒ 形聲			69	공자와 맹자		
감독위원		채점위원(1)		채점위원(2)		채점위원(3)					
(서명)		(특점)		(서명)		(특점)		(서명)		(서명)	

※ 뒷면으로 이어짐

\* 본 답안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글씨를 간 안에 도박도박 쓰십시오.

제30회 한자지도사자격검정시험 고급 답안지(2)

답안란		채점란		답안란		채점란		답안란		채점란	
번호	정답	1점	2점	번호	정답	1점	2점	번호	정답	1점	2점
70	사물의 시초.			97	芽			124	필단		
71	80세.			98	交渉			125	경구		
72	매우 적은 분량.			99	移葬			126	증조		
73	○			100	翁			127	반도		
74	○			101	晴			128	[119] 駿馬		
75	明鏡			102	姑			129	[121] 燦爛		
76	悲劇			103	貫徹			130	[122] 侍從		
77	猶不足			104	扶桑				[123] 錦繡		
78	妖術			105	艦艇				[125] 環玦		
79	可驚			106	殆半			131	④		
80	時方			107	遵守			132	①		
81	念誦			108	潛伏			133	①		
82	映照			109	施肥			134	○		
83	登極			110	요요무문			135	○		
84	雄姿			111	뒷간			136	×		
85	切迫感			112	살육			137	○		
86	至賤			113	괴팍			138	④		
87	聯想			114	유세			139	②		
88	碧空			115	희로애락			140	③		
89	海綿			116	성수			141	①		
90	② 胡박			117	외율			142	④		
91	④ 奔出			118	비색			143	午睡/午寢/晝寢		
92	② 渾合物			119	준마			144	傾耳(聽)		
93	⑤ 測程			120	흘연			145	於焉(間)		
94	⑤ 判端			121	찬란			146	前人未踏		
95	責			122	시종			147	不及		
96	摩			123	금수			148	○		
								149	×		
								150	④ 豐		